

한미 FTA 발효 6개월, 對美 수출 성과 분석



CONTENT

목 차

요 약 / 1

I. 최근 미국의 수입동향

- | | |
|---|----------------|
| 4 | 1. 주요국별 수입동향 |
| 5 | 2. 주요 품목별 수입동향 |
| 6 | 3. 對韓 수입동향 |

II. 中企 FTA 수혜품목 및 활용 성공사례

- | | |
|----|----------------------|
| 9 | 1. 솔레노이드밸브 |
| 10 | 2. 자동차 소음제거 방진고무 |
| 12 | 3. 브레이크 패드 |
| 14 | 4. ABS/ESC |
| 15 | 5. 조향장치(Steering) |
| 16 | 6. 자동차용 인테리어 LED 램프 |
| 17 | 7. 자동차용 필터 |
| 19 | 8. 기어호브커터 |
| 21 | 9. 합성필라멘트직물 |
| 24 | 10. 편직물 원단 |
| 27 | 11. 김 |
| 30 | 12. 건조감귤 |
| 32 | 13. 간장계장 |
| 35 | 14. 농기계 및 건설기계용 주물제품 |
| 38 | 15. 전문가용 디자인마커 |
| 40 | 16. LED 조명 |

요약

□ 최근 미국의 수입동향

○ 주요국별 수입동향

- 경기회복이 둔화되면서 전반적인 수입증가율이 급감
 - * 對세계 수입증가율 : 22.7%('10) → 15.4%('11) → 6.0%('12년 상반기)
- 일본 외에, 수입상위국으로부터 수입증가율도 감소
 - * 국별 수입증가율('11년→'12년 上) : 중국(9.4%→8.2%), 캐나다(13.6%→5.9%)
멕시코(14.3%→8.9%), 일본(7.0%→25.3%), **한국(15.9%→5.4%)**, 대만(15.5%→7.4%)
 - * '11년 대지진 사태로 차질이 발생한 일본사 자동차 대미 수출이 정상화(60.29%↑)

○ 주요 품목별 수입동향

- (증가품목) 자동차·부품, 기계류 수입
- (감소품목) 석유제품,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TV 수신기기 등

○ 對韓 수입 동향

- 한국의 대미 수출에서 큰 비중(18%)을 차지하는 무선통신기기(해외생산확대), 반도체(단가하락지속) 및 석유제품(단가하락+미국 정유 업체의 가동률 증가로 수입 감소) 수출 감소로 미국의 대한 수입증가율 감소폭이 다른 국가보다 크게 나타남.
 - * 상기 3개 품목을 제외한 미국의 올해 상반기 대한 수입증가율은 19%에 육박
 - *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미 수출에서 무선통신기기와 반도체 비중이 높은(17%) 대만의 경우 올해 상반기 수입은 7.4% 감소
- (수입증가 품목) 자동차·부품, 고무류, 플라스틱류, 섬유류, 철강·철강 제품, 밸브·펌프·공작기계·건설중장비 등 일부 기계류로 FTA 수혜품목이 다수
 - * FTA 수혜 품목별 상반기 대미수출 증가율 : 기계(15%), 자동차부품(25%), 고무제품(17%), 플라스틱제품(15%), 섬유제품(14%)
- (수입감소 품목)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석유제품 외에 대한 수입규제 대상 품목인 냉장고, 세탁기, 변압기 등이 대표적

□ 중소기업 FTA 활용성공 사례

구분	품목명 (관세율 변화, '12 기준)	활용 성공 사례
자동차 부품	① 솔레노이드밸브 (2.5%→0%)	·U社 : '12년 8월, 미국 완성차 제조업체인 C社에 향후 5년 동안 2천만 달러 규모의 제품을 납품기로 계약, FTA 발효에 따른 2.5% 관세철폐가 계약수주에 결정적 역할
	② 자동차 소음제거 방진고무 (2.5%→0%)	·D社 :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여 C社 등 대형 바이어에 직접 납품 중인데, 2.5% 관세 철폐로 관세 납부금 만큼(월 8~10만 달러 수준) 이익이 증가
	③ 브레이크 패드 (2.5%→0%)	·S社 : 2.5% 관세 철폐 효과를 바이어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이의 결실로 올해 하반기 N社 사장단이 직접 한국공장을 방문하여 계약 여부를 결정할 예정. 이외에도 Tier1 업체들로부터 추가 주문이 이어지고 있어, 하반기 수출규모는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할 전망
	④ ABS/ESC (2.5%→0%)	·M社 : 한국 완성차 판매 증가로 공급물량이 증가, 2.5% 관세철폐로 관세납부액이 감소하여 사업수익성 개선
	⑤ 조향장치(Steering) (2.5%→0%)	·M社 : 한국 완성차 판매 증가로 공급물량이 증가, 2.5% 관세철폐로 관세납부액이 감소하여 사업수익성 개선 * ABS(브레이크 잠김 방지장치), ESC(자세안정화장치)
	⑥ 자동차용 인테리어 LED 램프 (2.5%→0%)	·S社 : GM Korea에서 진행한 글로벌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하여 향후 3년간 300만 달러 규모로 납품 예정
	⑦ 자동차용 필터 (2.5%→0%)	·K社 : 2.5% 관세철폐로 기존 바이어 B社は 중국 업체와의 거래 물량을 줄이는 대신, K社の 물량을 늘리는 계약 체결, 올해 하반기 수출은 전년대비 15% 이상 증가 전망

기 계	⑧ 기어호브커터 (5.0%→0%)	·D社 : 바이어 M社は 이제까지 미국 Gleason社 제품을 사용해왔으나, 최근 D社 제품 품질을 테스트해 본 후 수입선 변경 결정했는데, D社가 5% 관세 철폐분 만큼 견적가를 낮게 제시한 것이 이번 결정에 주효하게 작용
섬 유	⑨ 합성필라멘트직물 (13.6%→12.2%)	·S社 : 관세 인하로 샘플오더를 수주하는 등 바이어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어, 연내 정식오더 수주 유력
	⑩ 편직물 원단 (12.3%→11%)	·지텍코리아 : 기존 바이어로부터 95만 달러의 추가 주문량을 확보하고 Target, Walmart, Gap 등 신규 거래처를 뚫는데도 성공
식 품	⑪ 김 (6.0%→0%)	·세화 : 한식인지도 제고 및 6% 관세철폐로 제품에 대한 관심 증가, 바이어 Mycon社를 서울 국제식품전에 초청, 여러 차례에 걸친 상담 끝에 향후 3년간 300만 달러 규모를 납품한다는 MOU에 서명
	⑫ 건조감귤 (US\$0.19/kg→US\$0/kg)	·O社 : 선키스트, Trader Joe's 등 주류 유통망에 납품 성공, 향후 대미 수출 더욱 증가 기대
	⑬ 간장게장 (5.0%→3.3%)	·엠앤란 간장게장 : 진출가능성이 높은 한인 바이어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마케팅을 실시하여, 지난 4~5월 두 달간 현지 한인업체에 24,000달러 어치 납품
기 타	⑭ 농기계 및 건설 기계용 주물제품 (2.9%→0%)	·D社 :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가 인상으로 가격경쟁력 약화 문제에 봉착했으나, FTA 발효로 2.9% 관세가 철폐되면서 가격경쟁력 회복에 큰 도움. 이의 결실로 기존 바이어 A社와 연간 100만 달러 규모의 신규 납품 계약을 앞두고 있음.
	⑮ 전문가용 디자인마커 (4.0%→0%)	·알파색채 : 유명미술재료 생산업체인 C社와 자사 맵시(MEPXY) 브랜드로 연간 100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 추진 중
	⑯ LED 조명 (3.9~6.0%→0%)	·엔타임텍 : 바이어 맥스라이트는 FTA 발효로 최대 6% 관세가 즉시 철폐되자, '12년 초 대비 평판패널조명과 라이트바 제품 주문량을 10% 이상 증가

1. 최근 미국의 수입동향

□ 주요국별 수입동향

○ 경기 회복이 둔화되면서 전반적인 수입증가율이 급감

* 對세계 수입증가율 : 22.7%('10) → 15.4%('11) → 6.0%('12년 상반기)

○ 일본을 제외한 수입상위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율 감소

- 지난해 대지진 사태로 차질이 발생한 일본산 자동차 수출이 정상화되면서 올해 상반기 대일 수입이 급반등(기저효과)

*올해 상반기 미국의 일본산 자동차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60.29% 증가

- 한국의 대미 수출에서 큰 비중(18%)을 차지하는 무선통신기기(해외생산확대), 반도체(단가하락지속) 및 석유제품(단가하락+미국 정유 업체의 가동률 증가로 수입 감소) 수출 감소로 미국의 대한 수입증가율 감소폭이 다른 국가보다 크게 나타남.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미 수출에서 무선통신기기와 반도체 비중이 높은(17%) 대만의 경우 올해 상반기 수입은 7.4% 감소

<미국의 주요국별 수입동향>

(단위 : 백만 달러)

	2010	2011	2012.1~6월
對세계	1,913,160(대미 수입액) 22.7%(전년대비 증감률)	2,207,824 15.4%	1,132,546 6.0%
對중국	364,944 23.1%	399,361 9.4%	197,894 8.2%
對캐나다	277,647 22.7%	315,346 13.6%	165,205 5.9%
對멕시코	229,908 30.2%	262,864 14.3%	140,397 8.9%
對일본	120,545 25.8%	128,925 7.0%	73,707 25.3%
對독일	82,429 15.3%	98,663 19.7%	52,010 10.5%
對한국	48,875 24.6%	56,661 15.9%	29,465 5.4%
對대만	35,846 26.4%	41,405 15.5%	19,054 -7.4%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미국 관세청 수입통계를 기준으로 작성)

□ 주요 품목별 수입동향

○ (수입 증가) 자동차·부품, 기계류 등

- 자동차 판매 호조로 자동차·부품 수입도 전년 동기대비 24% 성장
- 미국의 제조업 생산 증가와 올해 말까지 유효한 자본재 구매 세제혜택*에 힘입어 시설·설비투자가 증가하면서 기계류 수입도 전년 동기대비 12% 증가

* 자본재 구매 세제혜택 : 139,000달러 일시공제, 50% 조기 감가상각 허용

○ (수입 감소) 석유제품, 무선통신기기, TV 수신기, 반도체 등

- 유가가 상대적으로 싸지면서, 미국 정유 업체들의 원가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 정제시설 가동률을 높여, 석유제품 수입을 감축하는 추세
- 전자기기류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4%)하였으나, 무선통신기기 (-4%), TV 수신기(-4%), 반도체(-0.3%) 등의 품목에서는 수입이 감소

<미국의 주요 품목별 수입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HS 코드	품목명	2012.1~6월 수입액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총 계	1,132,546	6.03
27	광물성연료	223,321	-0.95
84	기계류	155,775	12.44
85	전자기기류	137,185	4.00
87	자동차/부품	117,735	23.95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對韓 수입 동향

○ '12년 상반기 미국의 對韓 수입은 5.4% 증가

- 對韓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석유제품 수입 감소로 대한 수입증가율이 감소
- 상기 3개 품목(HS 4단위 기준, 무선통신기기·반도체·석유제품)을 제외한, 미국의 올해 상반기 對韓 수입 증가율은 19%에 육박

○ (수입증가 품목) 자동차·부품, 고무류, 플라스틱류, 섬유류, 철강·철강제품, 밸브·펌프·공작기계·건설중장비 등 일부 기계류

* 대한 수입액의 80%를 차지하는 100대 수입 품목(HS 4단위 기준) 중심으로 분석

- 자동차부품, 고무류, 플라스틱류, 섬유류, 밸브·펌프·공작기계는 대표적 FTA 수혜품목

<주요 對韓 수입 증가 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HS	품목명	2012 상	증감률	FTA 관세철폐 스케줄
플라 스 틱 류	3907	Polyacetals, Other Polyethers And Epoxide Resins,	97.6	28.8	5.8~6.5% 즉시철폐
	3903	Polymers Of Styrene, In Primary Forms	88.8	45.3	6.5% 단계철폐
	3923	Articles For The Conveyance Or Packing Of Goods, O	87.4	15.7	3~5.3% 단계철폐
	3926	Articles Of Plastics And Articles Of Polymers And	66.5	31.9	0~6.5% 단계철폐
	3921	Plates, Sheets, Film, Foil And Strip Nesoi, Of Pla	60.1	2.4	4.2~6.5% 단계철폐
	3918	Floor Coverings, In Rolls Or Tiles, Of Plastics; W	49.8	37.5	4.2~6.5% 단계철폐
고 무 류	4011	New Pneumatic Tires, Of Rubber	843.1	16.4	4% 단계철폐
	4002	Synthetic Rubber And Factice In Primary Forms Etc.	165.1	30.1	무관세 지속
	4016	Articles Nesoi, Of Unhardened Vulcanized Rubber	67.3	30.3	0~4.2% 단계철폐
섬 유 류	5208	Woven Fabrics Of Cotton, Containing 85% Or More Co	64.5	6.6	0~14.7% 단계철폐
	5402	Synthetic Filament Yarn (Other Than Sewing Thread)	44.7	30.4	0~8.8% 단계철폐
	5503	Synthetic Staple Fibers, Not Carded, Combed Or Oth	93.6	40.0	0~4.3% 즉시철폐
	5903	Textile Fabrics Impregnated, Coated, Covered Or La	39.2	16.8	0~14.1% 단계철폐
	6006	Knitted Or Crocheted Fabrics, Nesoi	40.7	21.0	10% 단계철폐
철 강	7208	Flat-Rolled Iron Or Nonalloy Steel Products, 600 M	384.5	18.0	무관세 지속
	7210	Flat-Rolled Iron Or Nonalloy Steel Products, 600 M	166.5	40.3	무관세 지속
	7228	Bars And Rods Nesoi, Angles, Shapes And Sections O	55.9	125.8	무관세 지속
	7202	Ferroalloys	51.9	41.4	0~10% 단계철폐

구분	HS	품목명	2012 상	증감률	FTA 관세철폐 스케줄
철강제품	7306	Tubes, Pipes And Hollow Profiles Nesoi (Open Seame	768.6	29.9	무관세 지속
	7318	Screws, Bolts, Nuts, Coach Screws, Screw Hooks, Ri	96.9	32.8	0~5.8% 즉시철폐
	7305	Tubes And Pipes Nesoi (Welded Etc.), Having Intern	95.8	149.2	무관세 지속
	7308	Structures (Excluding Prefab Buildings Of Heading	90.8	184.8	무관세 지속
	7307	Tube Or Pipe Fittings (Including Couplings, Elbows	84.1	51.0	0~6.2% 단계철폐
	7312	Stranded Wire, Ropes And Cables, Plaited Bands Etc	83.9	13.6	무관세 지속
	7326	Articles Of Iron Or Steel, Nesoi	48.4	46.4	0~8.6% 즉시철폐
	7304	Tubes, Pipes And Hollow Profiles, Seamless, Of Iro	42.3	25.9	무관세 지속
기계류	8471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 And Units There	549.8	45.4	무관세 지속
	8429	Self-Propelled Bulldozers, Angledozer, Graders, L	508.6	201.6	무관세 지속
	8407	Spark-Ignition Reciprocating Or Rotary Internal Co	258.8	188.0	0~2.5% 즉시철폐
	8481	Taps, Cocks, Valves And Similar Appliances For Pip	225.5	33.7	2~5.6% 즉시철폐
	8414	Air Or Vacuum Pumps, Air Or Other Gas Compressors	209.7	5.3	0~4.7% 즉시철폐
	8409	Parts For Spark-Ignition Reciprocating Or Rotary I	164.3	39.5	0~2.5% 즉시철폐
	8483	Transmission Shafts And Cranks; Bearing Housings,	155.9	47.7	0~5.7% 단계철폐
	8413	Pumps For Liquids, With Or Without A Measuring Dev	152.2	43.1	0~2.5% 즉시철폐
	8458	Lathes For Removing Metal, Including Turning Cente	149.2	121.0	4.2~4.4% 단계철폐
	8431	Parts Of Machinery Of Headings 8425 To 8430 Coveri	121.9	9.1	무관세 지속
	8427	Fork-Lift Trucks; Other Works Trucks Fitted With L	108.9	38.7	무관세 지속
	8415	Air Conditioning Machines, Comprising A Motor-Driv	87.2	5.3	0~1.4% 즉시철폐
	8419	Machinery Or Equipment For The Treatment Of Materi	81.9	32.8	0~4.2% 즉시철폐
	8472	Office Machines Nesoi (Including Duplicating Machi	71.5	38.2	0~2.6% 즉시철폐
	8412	Engines And Motors Nesoi, And Parts Thereof	68.9	98.1	무관세 지속
	8457	Machining Centers, Unit Construction Machines And	54.0	106.6	3.3~4.2% 즉시철폐
	8482	Ball Or Roller Bearings, And Parts Thereof	50.9	24.5	2.4~9.9% 단계철폐
	8466	Parts And Accessories For Use With Machine Tools O	48.9	216.9	0~5.8% 단계철폐
	8480	Molding Boxes For Metal Foundry; Mold Bases; Moldi	47.5	101.1	0~3.8% 즉시철폐
	8404	Auxiliary Plant For Use With Boilers (Steam Or Oth	46.9	120.8	3.5~5.6% 즉시철폐
전자기기류	8541	Diodes, Transistors And Similar Devices; Photosens	212.9	58.3	무관세 지속
	8507	Electric Storage Batteries, Including Separators T	166.8	8.1	2.5~3.5% 즉시철폐
	8523	Prepared Unrecorded Media (Other Than Motion-Pictu	149.3	3.7	0~2.7% / 종량세 즉시철폐
	8543	Electrical Machines And Apparatus, Having Individu	131.4	94.5	0~2.6% 즉시철폐
	8501	Electric Motors And Generators (Excluding Generati	111.7	51.8	0~6.7% 즉시철폐
	8525	Transmission Apparatus For Radiotelephony, Radiote	104.7	15.1	0~3% 즉시철폐
	8536	Electrical Apparatus For Switching Or Protecting E	91.5	27.8	0~2.7% 즉시철폐
	8544	Insulated Wire, Cable And Other Insulated Electric	88.6	49.8	0~5.3% 단계철폐
	8537	Boards, Panels Etc. With Two Or More Appar For Swi	59.5	10.8	2.7% 즉시철폐
	8534	Printed Circuits	54.7	26.1	무관세 지속
	8527	Reception Apparatus For Radiotelephony, Radioteleg	51.0	88.4	0~6% 즉시철폐
	8521	Video Recording Or Reproducing Apparatus, Whether	47.5	18.7	무관세 지속
	8511	Electrical Ignition Or Starting Equipment Used For	43.8	11.9	0~3.1% 즉시철폐
자동차	8703	Motor Cars And Other Motor Vehicles Designed To Tr	5600.6	38.5	2016년 2.5% 관세철폐
	8708	Parts And Accessories For Tractors, Public-Transpo	1816.7	25.4	0~2.5% 즉시철폐
	8701	Tractors (Other Than Works Trucks Of Heading 8709)	115.1	31.2	무관세 지속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12년 상반기 FTA 수혜품목별 對美 수출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품목명	2012.1~6월 수출액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기계	5,847	15
자동차부품	1,817	25
고무제품	1,138	17
플라스틱제품	708	15
석유제품	530	14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미국 관세청 수입통계를 토대로 집계)

- (수입감소 품목)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석유제품 외에 대한 수입규제 대상품목인 냉장고, 세탁기, 변압기 등이 대표적

<주요 對韓 수입 감소 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HS	품목명	2012 상	증감률(%)	FTA 관세철폐 스케줄
석유 제품	2707	Oils And Other Products Of The Distillation Of Hig	57.8	-59.8	0% or 종량세, 즉시철폐
	2710	Petroleum Oils& Oils From Bituminous Mins (Other T	1147.2	-11.7	종량세, 5.8~7% 즉시철폐
기 계 류	8421	Centrifuges, Including Centrifugal Dryers; Filteri	93.1	-7.9	0~2.5% 즉시철폐
	8479	Machines And Mechanical Appliances Having Individu	98.5	-15.3	0~2.8% 단계철폐
	8411	Turbojets, Turbopropellers And Other Gas Turbines,	152.8	-6.5	0~2.4% 즉시철폐
	8443	Printing Machinery (Including Ink-Jet Printing Mac	154.5	-19.3	0~3.7% 즉시철폐
	8486	Machines And Apps Used Soley For Manufacture Of Se	199.1	-11.5	무관세 지속
	8451	Machinery (Except Laundry) For Washing, Cleaning,	220.8	-21.0	0~3.5% 단계철폐
	8450	Washing Machines, Household- Or Laundry-Type, Incl	288.3	-8.6	1~2.6% 단계철폐
	8418	Refrigerators, Freezers And Other Refrigerating Or	518.1	-6.8	무관세 지속
전 자 기 기 류	8473	Parts And Accessories Nesoi For Typewriters And Ot	664.0	-27.3	무관세 지속
	8531	Electric Sound Or Visual Signaling Apparatus (Bell	39.4	-27.1	0~1.3% 즉시철폐
	8529	Parts For Television, Radio And Radar Apparatus (O	56.8	-12.4	0~4% 단계철폐
	8516	Electric Water Heaters Etc., Space And Soil Heatin	60.1	-8.5	0~5.3% 즉시철폐
	8512	Electrical Lighting Or Signaling Equipment Nesoi,	129.7	-8.3	0~2.7% 즉시철폐
	8528	Television Receivers, Including Video Monitors And	155.6	-22.5	0~5% 단계철폐
	8504	Electrical Transformers, Static Converters Or Indu	200.2	-8.5	0~6.6% 즉시철폐
	8542	Electronic Integrated Circuits And Microassemblies	1,155.1	-26.3	무관세 지속
	8517	Electrical Apparatus For Line Telephony Or Line Te	2,910.2	-35.6	무관세 지속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참고 : 최근 미국 정부의 대한수입규제 품목

- 냉장고(HS 8418류) : 상무부의 덤핑 긍정판정 이후, 무역위원회에서 산업무피해 판정으로 조사 종료('12.4.17)
- 세탁기(HS 8450류) : 상무부 9.62~79.11% 덤핑 예비판정('12.7.30)
- 변압기(HS 8504류) : 14.95~29.04% 덤핑관세 부과 조치 발동('12.8.31)

2. 中企 FTA 수혜품목 및 활용 성공사례

품목명(1)	솔레노이드 밸브 * 운행 중 실제 변속이 일어나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맡은 자동변속기 핵심부품	HS Code	848120
관세율 변화	2.5% → 0%	관세철폐스케줄	즉시철폐
FTA 발효전후 對美 수출동향	·올해 상반기 대비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		

☐ 수요동향 및 전망

- 미국 시장의 차량판매 증가 및 자동변속기 장착 차량 증가로 수요 증가 전망

☐ 경쟁동향

- 글로벌 Tier-1인 Borgwarner, Bosch, Denso 등이 경쟁기업

☐ 한미 FTA 발효 전후 對美 수출동향

-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수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36.6% 증가한 290만 달러를 기록

<수입 대상국 및 수입액>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명	2010	2011	2012.1~6월	증감률(%)
1	일본	213.4	269.5	145.8	15.4
2	멕시코	172.9	206.9	110.7	10.3
3	독일	137.0	208.4	104.6	11.4
4	이탈리아	30.5	57.7	35.9	44.0
5	중국	22.4	73.5	26.3	6.4
17	한국	4.2	4.4	2.9	36.6
합계		810.5	1,086.7	563.3	12.1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한미 FTA 활용 對美 수출 성공사례

- 국내 기업 U社は 미국 C社와 '12년 8월, 향후 5년 동안 2천만 달러 규모의 납품 계약을 체결
- 2.5%의 관세철폐가 계약 수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짐.

품목명(2)	자동차 소음제거 방진고무	HS Code	87089955
관세율 변화	2.5% → 0%	관세철폐스케줄	즉시철폐
FTA 발효전후 對美 수출동향	·올해 상반기 대비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		

□ 수요동향 및 전망

- '11년 기준 미국의 고무 관련 제품 제조 산업 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6.9% 성장한 176억 달러를 기록(자료원 : IBIS World)
- '15년 까지 200억 달러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

<연도별 매출규모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연도	매출액	증감률	연도	매출액	증감률
2006	\$17,769.50	0.7%	2011	\$16,862.30	6.9%
2007	\$17,400.60	-2.1%	2012	\$17,638.00	4.6%
2008	\$15,923.40	-8.5%	2013	\$18,572.80	5.3%
2009	\$13,455.60	-15.5%	2014	\$19,650.00	5.8%
2010	\$15,773.90	17.2%	2015	\$20,023.40	1.9%

주 : '12년 이후는 예상치

자료원 : IBIS World

- 자동차 부품이 가장 큰 수요처(29%)로, 기계용(17%), 합성제품 및 믹스(16%)가 그 뒤를 이음. (자료원 : IBIS World)
- 올해 8월까지 미국 자동차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17.8% 증가, 연말까지 이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 고무 부품 수요도 동반 증가 예상

□ 경쟁동향

- 상위 4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5% 미만으로 분화된(fragmented) 시장
- 제품가격의 55%를 차지하는 원자재 가격이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상승하며 가격경쟁력에 대한 압력이 크게 증가
- 원자재 공급이 용이하고 노동력이 저렴한 해외 생산기지 구축이나 해외 구매 비중이 증가

□ 한미 FTA 발효 전후 對美 수출동향

- 올해 상반기 대미 수출은 30% 증가하였으며, 이 추세대로라면 수입국 1위인 중국도 제칠 수 있을 전망

<수입 대상국 및 수입액>

(단위: 천 달러)

순위	국가명	2010	2011	2012.1~6월	증감률(%)
1	중국	47,924	74,252	40,119	5.77
2	한국	22,690	61,333	38,770	30.22
3	멕시코	9,088	59,631	35,452	32.58
4	캐나다	40,097	53,580	29,883	8.82
5	일본	29,529	37,741	21,958	24.59
6	독일	22,070	20,329	10,397	12.63
합계		201,066	346,656	192,571	14.3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한미 FTA 활용 對美 수출 성공사례

- 자동차 방진고무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D社는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여 C社 등 대형 바이어에 직접 납품 중
- 한미 FTA 발효로 2.5%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관세 납부금만큼(월 8~10만 달러 가량) 이익이 증가

품목명(3)	브레이크 패드	HS Code	870830
관세율 변화	2.5% → 0%	관세철폐스케줄	즉시철폐
FTA 발효전후 對美 수출동향	·올해 상반기 대비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		

□ 수요동향 및 전망

- 미국 자동차시장 판매 호조 지속, 올해 8월 판매 대수는 전년대비 18% 급증하며 최근 5년 내 최대 판매량을 기록
- '09년 연간 판매량이 1,000만대 선까지 내려갔으나, 올해는 1,400만 대 선으로 회복 예상

□ 경쟁동향

- 현지의 주요 자동차용 브레이크 제품 생산업체들은 Akebono Brake Corporation, TRW Automotive, Continental AG, Affinia Group, Robert Bosch GmbH, ArvinMeritor 등이 있음.
- 대다수가 Tier 1 업체들로, 브레이크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자동차 부품도 생산하고 있으며 Tier 2 업체들로부터 OEM 공급도 받고 있음.
- Akebono Brake Corporation사가 선도 기업으로, 전체 시장의 14.7%를 점유하고 있으며, TRW Automotive사가 9.6%, Continental AG 4.8%, Affinia Group 4.0%, Robert Bosch 1.5%, ArvinMeritor는 0.5%로 그 뒤를 이음. (자료원 : IBIS World)
- 이밖에 다른 기업들이 나머지 65.9%를 점유
- 현지 바이어들로부터 한국의 브레이크 패드에 대한 인지도 제고
- 브레이크 제품은 운전자와 기타 탑승자들의 안전문제로 연결될 수 있어 현지 바이어들은 가격이 낮지만 품질경쟁력이 떨어지는 중국산에 비해 품질 좋은 한국산을 더욱 선호

□ 한미 FTA 발효 전후 對美 수출동향

- 올해 상반기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

<수입 대상국 및 수입액>

(단위: 천 달러)

순위	국가명	2010	2011	2012.1~6월	증감률(%)
1	중국	1,116,378	1,216,384	627,928	6.57
2	멕시코	920,399	934,422	518,588	12.46
3	일본	484,036	474,949	307,655	33.54
4	캐나다	487,455	472,221	252,428	0.76
5	독일	293,324	360,828	165,863	-10.92
6	한국	270,497	258,451	141,693	12.77
합계		4,089,092	4,328,816	2,350,214	9.37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한미 FTA 활용 對美 수출 성공사례

- S社は 브레이크 패드 생산업체로 FTA 발효에 따른 2.5% 관세 철폐 효과를 바이어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최근 N社の 관심을 얻는데 성공
 - 올해 하반기, N社 사장단이 직접 한국공장을 방문하여 계약여부를 결정할 예정
- 이외에도 자동차 부품 Tier 1 업체들로부터 추가적인 주문이 이어지고 있어, 올해 하반기 수출규모는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

품목명(4)	ABS(브레이크 잠김 방지장치)/ ESC(자세안정화장치)	HS Code	848180
관세율 변화	2.5% → 0%	관세철폐스케줄	즉시철폐
FTA 발효전후 對美 수출동향	·올해 상반기 대비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		

☐ 수요동향 및 전망

- 브레이크의 전장제품인 ABS/ESC는 제동장치의 안전성 강화와 고급 차종의 생산 확대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전망

☐ 경쟁동향

- 글로벌 Tier-1인 Bosch, Continental, TRW 등이 경쟁기업임

☐ 한미 FTA 발효 전후 對美 수출동향

<수입 대상국 및 수입액>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명	2010	2011	2012.1~6월	증감률(%)
1	중국	1,448.2	1,689.6	976.8	17.9
2	멕시코	1,004.2	1,029.2	620.2	24.1
3	일본	640.1	696.0	414.0	24.3
4	독일	434.0	584.4	297.8	3.1
5	캐나다	319.0	350.6	193.6	13.9
8	한국	146.6	210.1	132.2	50.0
합계		5,620.3	6,456.0	3,658.1	16.6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한미 FTA 활용 對美 수출 성공사례

- 한국 완성차 판매 증가로 공급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M社는 2.5% 관세 철폐로 관세 납부액이 감소하여, 사업수익성 개선

품목명(5)	조향장치(steering)	HS Code	870894
관세율 변화	2.5% → 0%	관세철폐스케줄	즉시철폐
FTA 발효전후 對美 수출동향	·올해 상반기 대미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		

□ 수요동향 및 전망

- 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빅3에서는 기계, 전기, 전자 등 통합 시스템이 적용된 자동차 조향장치(Steering)에 대한 수요가 다대

□ 경쟁동향

- NSK, TRW, ThyssenKrupp 등이 경쟁

□ 한미 FTA 발효 전후 對美 수출동향

- 올해 상반기 한국산의 대미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4.7% 증가

<수입 대상국 및 수입액>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명	2010	2011	2012.1~6월	증감률(%)
1	멕시코	911.9	1,130.6	668.5	23.1
2	일본	478.1	456.7	272.8	20.5
3	독일	186.3	312.9	185.2	20.7
4	한국	225.6	288.4	180.0	34.7
5	캐나다	99.2	142.7	96.7	45.1
합계		2,271.4	2,805.2	1,675.9	22.9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한미 FTA 활용 對美 수출 성공사례

- 한국 완성차 판매 증가로 공급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M社는 2.5% 관세 철폐로 관세 납부액이 감소하여, 사업수익성 개선
- 그러나 최근 M社와 거래하는 주요 바이어들이 부피가 크고 무게가 있는 제품에 대한 운송비 문제로 현지 생산을 요청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감소 우려

품목명	자동차용 인테리어 LED 램프	HS Code	851220
관세율 변화	2.5% → 0%	관세철폐스케줄	즉시철폐
FTA 발효전후 對美 수출동향	·올해 상반기 대비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		

□ 수요동향 및 전망

- 글로벌 소싱 확대로 내장용 램프에 대한 가격대비 품질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납품 기회가 확대되고 있어 한국산 수요 증가에 기여 전망

□ 경쟁동향

- 글로벌 Tier-1인 Hella, Lear 등이 경쟁기업임

□ 한미 FTA 발효 전후 對美 수출동향

- 올해 상반기 한국산 대비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0.6% 증가한 6,100만 달러 기록

<수입 대상국 및 수입액>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명	2010	2011	2012.1~6월	증감률(%)
1	멕시코	385.8	503.2	307.2	33.3
2	대만	374.3	425.9	231.5	2.9
3	중국	195.8	259.3	147.9	17.6
4	일본	133.4	139.5	97.7	47.1
5	캐나다	111.8	145.4	68.8	-10.8
6	한국	70.4	103.3	61.3	30.6
합계		1,488.5	1,845.8	1,051.3	14.2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한미 FTA 활용 對美 수출 성공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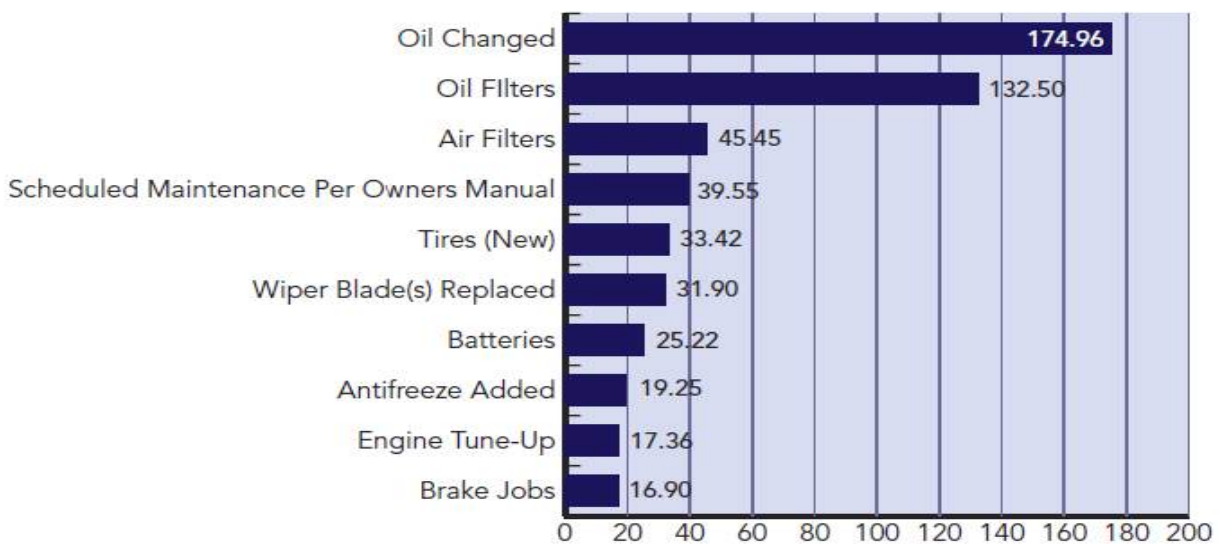
- S社は FTA 발효 前, GM Supplier Discovery Day에서 엔지니어들로부터 호평
- GM이 지정한 Direct Tier-2로 등록되어 RFQ에 대응을 해왔으나, 미국 서플라이 체인에 신규 공급업체로 선정되기까지 난관에 봉착
 - 여러 번의 시도 끝에, GM Korea에서 진행한 글로벌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하여, 향후 3년간 300만 달러 규모로 납품 예정

품목명	자동차용 필터	HS Code	842131
관세율 변화	2.5% → 0%	관세철폐스케줄	즉시철폐
FTA 발효전후 對美 수출동향	·올해 상반기 대미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		

□ 수요동향 및 전망

- (OEM) 미국 신차 판매 회복에 힘입어, OEM 부품 수요도 동반 증가
- (A/S) 자동차 필터류 (에어, 오일, 케빈)의 경우 자동차 부품 중 교환 빈도가 높은 부품으로, 전체적인 자동차 판매의 상승세와 기존 자동차의 노화 등으로 인한 수요 증가로, 향후 지속적인 성장세 예상

<Top 10 Replacement Rate Categories by Vehicle Age Group>



자료원 : AAIA 2013 Factbook

□ 한미 FTA 발효 전후 對美 수출동향

- 올해 상반기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

<수입 대상국 및 수입액>

(단위: 천 달러)

순위	국가명	2010	2011	2012.1~6월	증감률(%)
1	멕시코	85,799	97,969	55,956	15.12
2	독일	41,934	50,186	25,828	-4.27
3	중국	41,966	37,965	25,600	30.74
4	일본	30,316	32,835	17,018	2.82
5	캐나다	37,878	39,884	16,404	-18.80
6	한국	15,774	16,224	9,032	6.90
합계		311,708	337,301	187,288	8.62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한미 FTA 활용 對美 수출 성공사례

- K社は 자동차용 필터 생산업체로 FTA 발효로 2.5% 관세가 철폐되었다는 사실을 바이어 대상으로 적극 홍보
- 기존 거래업체인 B社は 중국 업체와의 거래 물량을 줄이는 대신, K社の 물량을 늘리는 계약을 체결
- 신규 바이어들로 부터 추가적인 주문도 잇따르고 있어, 올해 하반기 수출규모는 전년대비 1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

품목명	기어호브커터 *기어를 깎아내는 데 필요한 절삭공구	HS Code	82079030
관세율 변화	5.0% → 0%	관세철폐스케줄	즉시철폐
FTA 발효전후 對美 수출동향	·올해 상반기 대비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		

□ 수요동향 및 전망

- 자동차 및 중장비 시장 회복에 따라 절삭공구를 비롯한 공작기계 시장 수요도 동반 증가
 - '12년 말까지 유효한 산업용 장비 감세조치(Tax Break)가 크게 기여
 - 올해 시설설비 투자 증가율은 8.8% 예상

□ 경쟁동향

- 일본산이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 한국, 대만산이 그 뒤를 이음.
 - 일본산은 품질 면에서 세계 최고로 인지되어 고가로 판매
 - 한국산은 일본산에 비해 인지도가 낮고 품질이 뒤떨어지는 것으로 평가
- 그러나 최근 몇 년간 한국산 인지도와 품질 향상, 5% 관세 철폐로 가격경쟁력이 향상됨에 따라 빠르게 미국 수입시장에서 세를 확장

□ 한미 FTA 발효 전후 對美 수출동향

- '11년 대만을 제치고, 수입국 2위 자리에 올라섰으며, 올해 상반기 대비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08% 증가하며 2위 자리 수성

<수입 대상국 및 수입액>

(단위: 천 달러)

순위	국가명	2010	2011	2012.1~6월	증감률(%)
1	일본	1,346	1,862	1,337	49.48
2	한국	518	1,184	806	108.33
3	대만	1,063	1,431	695	-5.13
4	독일	929	895	536	31.19
5	이탈리아	87	65	247	648.78
합계		4,827	6,423	4,017	38.79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한미 FTA 활용 對美 수출 성공사례

- 일본 완성차 제조업체에 변속기를 납품하는 바이어인 M社는 이제까지 미국 Gleason社 제품을 사용해왔으나, 최근 국내 D社 제품 품질을 테스트 해본 후 수입선 변경 결정
 - 품질은 비슷하지만, 5% 관세 철폐로 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돋보인 것이 이번 결정에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짐.
 - * D社は 미국 지사를 통해 한국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5% 관세 철폐분 만큼 관세납부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되어 신규바이어에게 기존보다 5% 낮게 견적 제시
- 이에 힘입어 올해 대미 수출은 작년보다 30~40만 달러 증가한 200만 달러로 예상

품목명	합성필라멘트직물	HS Code	540741
관세율 변화	13.6% → 12.2%('12년 기준)	관세철폐스케줄	10년 균등철폐
FTA 발효전후 對美 수출동향	·올해 상반기 대비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38% 증가		

□ 수요동향 및 전망

* 동 제품의 주요 수요처는 섬유제조업이므로 동 분야의 시장동향 위주로 기술

○ 미국 섬유 제조업 기반 붕괴 지속

- '07년 이후 글로벌 경기 부진, 미국 섬유제조 업체들의 해외이전 가속화로 미국 내 섬유산업 하락세 지속
-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IBIS World는 2008~2012년 동안 미국 섬유 제조업 매출액이 연평균 5.2%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

<미국 섬유제조업 매출액 추이 및 전망>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매출액(US\$백만)	49,466.0	45,078.7	43,112.2	42,870.6	42,624.4
증감률(%)	△11.1	△8.9	△4.4	△0.6	△0.6

자료원 : IBIS World

○ 분야별로는 부직포(non-woven) 분야의 생산기반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

- 전체 미국 제조업 매출액이 '08~'12년 동안 연평균 5.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미국 섬유제조업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는 부직포 제조분야는 연평균 0.3% 감소에 그칠 전망
- 이는 자동차 내장재, 의료용품 등에 주로 사용되는 부직포의 경우, 품질이 가장 중요한 경쟁요소로서 미국 내에서 생산해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 경쟁동향

- 주요 경쟁국은 캐나다, 영국, 일본 등 선진국
 - 합성필라멘트사 직물의 경우, 일반 직물과는 달리 가격보다는 품질이 중요시 되므로 선진국 제품이 미국 수입시장을 장악
 - * 국별 시장점유율('12년 상반기 기준) : 캐나다 32.2%, 영국 23.2%, 일본 12.6%
 - 다만, 올해 들어 상기 3개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은 급감하고 있는 반면, 후발국인 우리나라, 대만으로부터의 수입은 급증(다만 수입물량은 아직 미미한 수준)

<수입 대상국 및 수입액>

(단위: 천 달러)

순위	국가명	2010	2011	2012.1~6월	증감률(%)
1	캐나다	1,814	2,362	1,098	-15.9
2	영국	1,470	2,063	790	-24.4
3	일본	1,581	1,207	430	-31.5
4	독일	552	566.3	259	-23.6
5	말레이시아	402	601	196	-25.5
12	한국	23	21	20	138.4
합계		7,481	9,317	3,411	-24.8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한미 FTA 발효 전후 對美 수출동향

- 한미 FTA 발효를 계기로 큰 폭의 수출 증가세 시현
 - 우리나라의 對美 합성필라멘트사 직물 수출액은 불과 2만 달러 수준으로 미미하나, 올해 들어 수출 큰 폭 증가
 - 올해 1~6월 중 對美 수출액은 2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38.4% 증가하여 2011년 전체 수출액에 육박하는 등 폭발적 증가세

○ 주요 수출급증 요인

- 한미 FTA 발효 이후에도 여전히 12.2%라는 높은 관세율에 직면하고 있지만 FTA 발효 전(13.6%)에 비해서는 관세가 낮아져 국산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일정부분 제고된 점도 주요 수출급증 요인으로 분석

□ 한미 FTA 활용 對美 수출 성공사례

○ 꾸준한 기술개발로 글로벌 품질 경쟁력 확보

- 1996년 설립된 S社は 적극적인 R&D 투자를 통해 스포츠 및 레저용 분야의 초경량 소재 상용화에 성공하였으며 국내 아웃도어 자켓 선두기업인 Nepa에 독점공급할 정도로 기술력이 탄탄한 기업

○ KOTRA의 '한미 FTA 선도기업 육성사업' 참가 통해 마케팅 활동 한층 강화

- KOTRA 뉴욕 무역관의 유력 바이어 발굴 및 현지 전시회 참가 통해 10여개 이상의 글로벌 바이어와 심층상담
- 상기 글로벌 바이어들과의 상담과정에서 동사의 기술력과 한미 FTA에 따른 관세인하 등에 힘입어 바이어들로부터 호평

○ 현재 동사는 샘플오더를 수주하는 등 바이어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어 연내 정식오더 수주 유력

품목명	편직물 원단	HS Code	600410
관세율 변화	12.3% → 11.0%('12년 기준)	관세철폐스케줄	10년 균등철폐
FTA 발효전후 對美 수출동향	·올해 상반기 대비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		

□ 수요동향 및 전망

* 동 제품의 주요 수요처는 섬유 제조업이므로 동 분야의 시장동향 위주로 기술

○ 미국 섬유 제조업 기반 붕괴 지속

- '07년 이후 글로벌 경기 부진, 미국 섬유제조 업체들의 해외이전 가속화로 미국 내 섬유산업 하락세 지속
-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IBIS World는 2008~2012년 동안 미국 섬유 제조업 매출액이 연평균 5.2%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

<미국 섬유제조업 매출액 추이 및 전망>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매출액(US\$백만)	49,466.0	45,078.7	43,112.2	42,870.6	42,624.4
증감률(%)	△11.1	△8.9	△4.4	△0.6	△0.6

자료원 : IBIS World

□ 경쟁동향

○ 미국 편직물 제조업체들의 부진 지속

- 미국 내 편직물 제조업체들의 매출은 2000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
-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IBIS는 '00년에 52.5억 달러에 달했던 미국 편직물 제조업체들의 매출액은 올해는 19.9억 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

○ 미국 내 주요 편직물 생산업체

- 미국 편직물 제조업은 상위 4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26.2%, 8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31.0%에 불과할 정도로 다수의 업체가 경쟁

<미국 4大 편직물 생산업체별 시장 점유율>



○ 수입시장은 韓中 양강 구도

- 편직물 원단은 우수한 품질의 국산 원사를 사용하여 국내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올해 상반기 기준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24.2%로 중국(32.3%)과 시장을 양분
- 이 외에 대만(8.8%), 캐나다(8.3%), 이탈리아(6.1%), 멕시코(4.7%) 등이 뒤를 잇고 있으나 시장점유율 측면에서 큰 격차

□ 한미 FTA 발효 전후 對美 수출동향

- '10년에 5.4% 감소했던 대미 편직물 원단 수출은 '11년 이후 회복세
- '11년에는 對美 수출액 3,800만 달러를 기록, 전년대비 5.4% 증가하였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대비 7.3% 증가

<수입 대상국 및 수입액>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명	2010	2011	2012.1~6월	증감률(%)
1	중국	33.2	36.4	32.3	73.2
2	한국	36.1	38.1	21.1	7.3
3	대만	18.9	19.6	7.7	-16.1
4	캐나다	15.7	14.9	7.2	4.1
5	이탈리아	9.3	9.5	5.3	17.6
합계		142.3	145.2	87.1	21.8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한미 FTA 활용 對美 수출 성공사례

- 편직물 원단을 생산하는 지텍 코리아는 미국으로 수출이 전체의 75%에 달해 한미 FTA 활용이 매우 중요
- Spandex Yarn과 Nylon Yarn 안을 효성 한국공장에서 생산하여, Yarn forward rule이 충족됨에 따라 한미 FTA 특혜 가능
 - 수출품은 10년 균등관세철폐 품목으로 올해 적용 관세율은 12.3%에서 11%로 인하되었고, 물품취급수수료(화물가격의 0.3464%, 최대 485달러까지 부과 가능) 까지 면제됨에 따라 경쟁력 제고
- 기존 바이어로부터 추가 주문량 95만 달러를 확보하였으며, Target, Walmart, Gap 등 신규 거래처를 확보하였으며 현재 2개 거래처와 협상을 진행 중

품목명	김	HS Code	2008999090
관세율 변화	6.0% → 0%	관세철폐스케줄	즉시철폐
FTA 발효전후 對美 수출동향	·올해 상반기 대비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		

□ 수요동향 및 전망

* 김에 대한 현지 통계자료 부재로 전반적인 시장상황 위주로 기술

-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 교민들이 주요 소비계층
 - 미국 소비자들의 식문화는 육류 및 밀 위주로서 해초류로 분류되는 김은 거의 소비하지 않고 있음.
 - 미국에서 유통되는 김의 대부분은 김에 익숙한 한·중·일 교민들에 소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미국인들의 주로 초밥(Sushi)을 통해 간접적으로 김 소비
 - 일식에 관심이 높은 현지인들을 중심으로 일본 음식점 등에서 양념 또는 조리된 형태로 김 소비
- 최근 미국 내 한식 인지도 제고 등에 따라 김 소비 확대 예상
 - 지금까지 미국 내에서 김은 주로 아시아 계열 식품점을 중심으로 유통되어 왔으나 최근 미국 현지인들을 겨냥하여 염분 및 당도를 조절한 제품 등이 현지 주요 식품매장을 통해 유통

◆ 국산 김 미국시장 진출 사례

- ▶ 최근 미국 주요 식품유통업체인 『Trader Joe's』에서 판매되고 있는 국산 김(우측 그림참조)
- ▶ 제품명 : Roasted Seaweed Snack, 가격 : 99 Cent/4Oz



□ 경쟁동향

- 시장 선도기업 없이 다수의 중소규모 업체가 경쟁
 - 소비자들이 직접 구입하는 먹는 스낵형태의 김(Roasted Seaweed Snack)은 한국 제품이 강세
 - 초밥용 김(Seaweed Wrappers)은 일본, 중국 제품 위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미국의 주요 김 수입국은 중국, 한국, 일본 등
 - '11년 기준, 김이 포함되어 있는 가공식품류(HS코드 2008.90.9090) 수입액은 약 189백만 달러로서 전년대비 23% 증가
 - 국별로는 중국이 전체 수입시장의 23.8%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15.2%), 태국(14.2%), 캐나다(10.6%), 일본(6.7%)이 뒤를 잇고 있음.

□ 한미 FTA 발효 전후 對美 수출동향

- 2010년부터 연평균 40% 이상의 높은 수출 증가세 지속
 - 우리나라의 김류* 對美 수출액은 2008~09년 동안은 미국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부진을 보였으나 2010년부터 본격적인 회복세** 시현
 - * 김은 美측 HS코드 기준 2008.99.9090으로 분류되나 여기에는 다른 가공식품도 포함
 - * 연도별 수출증가율(%) : 1.0('09) → 54.7('10) → 53.5('11) → 41.2('12.1~6)
 - 올해 상반기 국산 김류 대미 수출액은 약 2,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1.2% 증가하는 등 수출 호조세 지속(시장점유율은 19.7%)
 - 최근 대미 김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미국 소비자들의 한식에 대한 관심 상승 및 한미 FTA에 따른 6.0% 관세철폐 효과 때문인 것으로 분석

<수입 대상국 및 수입액>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명	2010	2011	2012.1~6월	증감률(%)
1	중국	34.5	45.0	23.4	16.8
2	한국	18.8	28.8	20.3	41.2
3	태국	25.7	26.8	14.5	7.0
4	캐나다	8.3	20.0	11.6	25.5
5	멕시코	10.9	11.8	6.1	- 3.1
6	일본	13.4	12.6	4.8	- 17.1
합계		153.6	189.1	102.7	14.8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한미 FTA 활용 對美 수출 성공사례

○ 미국 내 한식 관심도 제고 및 관세철폐에 따른 시장기회 확대

- M社は 한미 FTA 발효에 따른 관세(6.0%) 철폐 및 미국 내 한식 인지도 상승 등에 따라 현지 바이어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미국시장 진출 위해 뉴욕무역관 공동물류사업 참가

○ 현지 한국식품 취급 바이어 대상 집중 마케팅 전개

- 바이어 대상 한식 인지도 향상 및 관세 철폐에 따른 국산제품의 가격 경쟁력 제고를 집중 홍보하였으며, 국산 제품에 관심 보인 바이어 중 성약 가능성이 높은 Mykon社 서울 국제식품전 초청(2012.5월)
- Mykon社 방한기간 중 (주)세화와의 집중 상담을 통해 3년간 300만 달러 규모의 '물품거래양해각서'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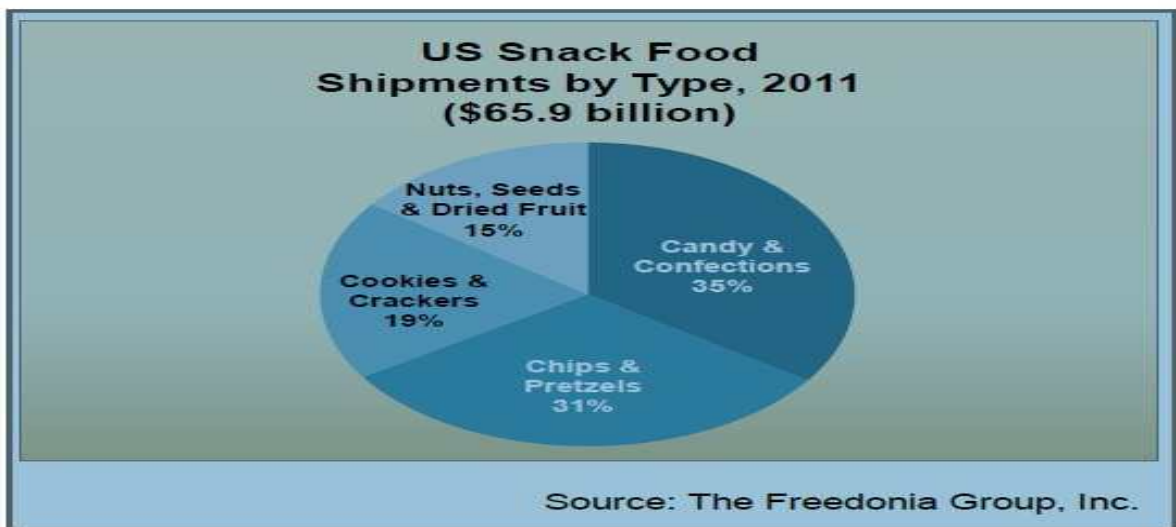
▶ 연도별 구매금액 : \$500,000('12) → \$1,000,000('13) → \$1,500,000('14)

품목명	건조감귤	HS Code	080520
관세율 변화	U\$0.19/kg → U\$0/kg	관세철폐스케줄	즉시철폐
FTA 발효전후 對美 수출동향	·올해 상반기 대비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640% 증가		

□ 수요동향 및 전망

- 경기 침체임에도 불구하고 캔류와 건조 과일 및 채소는 '15년 까지 매년 2.7% 성장할 것으로 예상
- 미국 스낵산업 규모는 11년 기준 659억 달러로 추정되며, 이 중 Nuts, Seeds & Dried Fruit이 15%정도(99억 달러)를 차지
 - 이 중 Dried Fruit이 30% 정도 시장을 차지

< 미국 스낵산업 구성>



자료원 : The Freedonia Group

□ 경쟁동향

- 현지의 주요 과일 및 채소 가공업체로는 Del Monte, Heinz, JR Simplot, Ocean Spray 등이 있으며, 상위 50대 회사가 70%의 시장을 점유

□ 한미 FTA 발효 전후 對美 수출동향

- 올해 상반기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640% 증가한 236,000달러를 기록

<수입 대상국 및 수입액>

(단위: 천 달러)

순위	국가명	2010	2011	2012.1~6월	증감률(%)
1	스페인	80,044	79,734	16,099	-37.40
2	모로코	35,084	24,589	14,408	2.19
3	칠레	36,307	45,525	11,094	25.58
4	페루	12,849	13,849	4,364	59.29
5	이스라엘	2,449	2,115	3,223	52.38
8	한국	0	548	236	6,639.20
합계		184,831	178,183	53,486	-5.13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한미 FTA 활용 對美 수출 성공사례

- LA무역관 지역기업해외마케팅거점사업 참가업체인 O社は 건조 과일과 식품을 가공, 생산하는 업체
- FTA 발효를 목전에 두고 애너하임 내츄럴 프로덕트 쇼와 같은 미국 내 전시회 참가를 비롯해 시장조사 및 바이어 발굴 등 적극적으로 해외마케팅에 박차
- 이 결과, 주류시장인 선키스트, Trader Joe's 등에 납품 성공했으며, 향후 대미수출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품목명	간장게장	HS Code	1605104010
관세율 변화	5.0% → 3.3%('12년 기준)	관세철폐스케줄	3년 균등
FTA 발효전후 對美 수출동향	·올해 상반기 대비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		

□ 수요동향 및 전망

* 간장게장 만에 대한 시장통계 부재로 전체 수산물 수요동향 자료로 대체

○ '11년 이후 수산물 수요 회복세 지속

- '08년 이후 미국 경기부진으로 미국 내 수산물 수요도 감소세를 보였으나 '11년 이후 서서히 경기가 회복되면서 다시 증가세로 반전

<미국 수산물 매출액 추이>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매출액(US\$백만)	13,784.7	13,270.8	11,440.1	12,536.2	13,489.5
증감률(%)	0.5	△3.7	△13.8	9.6	7.6

주 : 수산물은 'Fish & Seafood' 기준

자료원 : IBIS World

- 특히, 최근 미국 소비자들의 근로시간 증가로 집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간장게장이 속하는 '수산가공식품' 시장 성장세 지속

○ 현재 미국 내 간장게장의 주요 소비계층은 현지 교민

- '간장게장'이라는 식품 특성 상 아직 현지 미국인들의 수요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현지 교민*들에 의해 소비되는 것으로 파악

* 2010년 말(가장 최근통계) 기준, 미국 내 우리 교민 수는 약 217만명으로 추산

- 간장게장의 주요 판매처는 미국 동부지역의 경우, 한아름마트(H-Mart), 한양마트, 한남체인 등 한인 식품점

□ 경쟁동향

- 제품특성상 외국 업체와의 경쟁은 없는 상황
 - 미국 내 간장게장 공급업체는 모두 한국 업체들로서 국내 업체 간 경쟁 외에 외국 업체와의 경쟁은 전혀 없는 구조
- 간장게장 수입시장도 제품특성 상 한국 업체가 독점
 - 수입통계 상으로는 캐나다, 일본, 한국 3개국만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나 캐나다,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물량은 간장게장이 아닌 냉동된 게인 것으로 파악
 - * 국별 수입시장 점유율(2012. 1~6월 기준) : 74.8%(캐나다), 12.6%(일본), 10.1%(한국)

□ 한미 FTA 발효 전후 對美 수출동향

- 올해 상반기 한국산 대미 수출액은 약 21만 달러로, 수출금액 자체는 여전히 적지만 전년 동기대비 21.4% 증가하는 등 수출 호조세
 - * 상기 수출액은 미측 HS코드 1605.10.4015 기준인데, 간장게장 뿐 아니라 냉동 게도 포함
- '10년에는 대미 수출액이 전년대비 23.5% 감소하는 등 부진을 보였으나 '11년 이후 회복세

<수입 대상국 및 수입액>

(단위: 천 달러)

순위	국가명	2010	2011	2012.1~6월	증감률(%)
1	캐나다	2,264.1	1,013.5	1,553.9	285.7
2	일본	250.7	181.9	261.0	312.1
3	한국	491.8	749.8	208.9	21.3
4	베트남	-	8.2	41.7	-
5	중국	-	-	12.3	-
합계		3,006.6	1,956.7	2077.6	-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한미 FTA 활용 對美 수출 성공사례 : 엄앵란 간장게장

○ 미국 내 한국식품 수요 증가 활용 수출기회 포착

- 미국은 중국에 이어 우리 교민이 많은 지역(217만명 거주)이며 최근 현지인들 사이에 한식에 대한 관심 증가 → 국산 식품류 對美 수출 호조세*

* 뉴욕항을 통해 수입되는 한국 식품류만 매년 3억 달러를 상회

- KOTRA 뉴욕 무역관은 이러한 시장기회를 포착, 단일 상품으로 많은 물량이 수출될 수 있는 제품*들을 선별하여 국내업체 발굴 시작

* 멸치, 김, 바다 장어, 붕장어, 꽃게, 굴, 멍게 등

- 업체 발굴 과정에서 '엄앵란 간장게장' 브랜드가 국내 홈쇼핑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동 제품의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조사(FDA 승인절차, 라벨링 규정 등) 수행

○ 타깃 마케팅, 한미 FTA 혜택 활용하여 간장게장 미국시장 진출 성공

- '간장게장'이라는 제품 특성을 고려, 진출 가능성이 높은 한인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타깃 마케팅 실시

- 한미 FTA에 따라 '간장게장'의 관세율이 기존 5.3%에서 3.3%로 인하된 점도 적극 홍보하여 바이어들의 관심도 제고

* 간장게장 관세철폐 스케줄 : 3.3%('12.3.15~12.31) → 1.6%('13년) → 0%('14.1.1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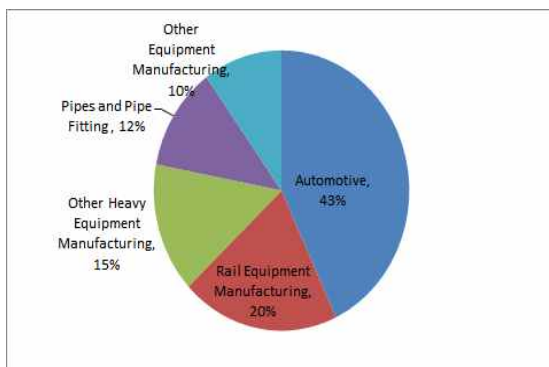
- 국산 간장게장에 관심을 보인 현지 한인업체(Mykon)와 24,000 달러 규모의 간장게장 납품계약 체결(2012.4월말)하였으며 5월말까지 2차례에 걸쳐 제품납품 완료

품목명	농기계 및 건설 기계용 주물제품	HS Code	73259950
관세율 변화	2.9% → 0%	관세철폐스케줄	즉시철폐
FTA 발효전후 對美 수출동향	·올해 상반기 대비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4%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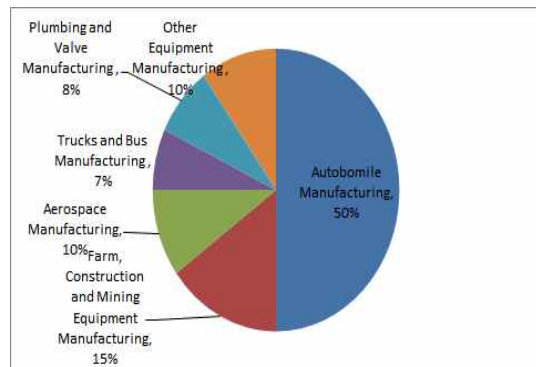
□ 수요동향 및 전망

- 금속 주물제품 (Metal Foundry Products) 제조 산업 시장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5.5% 증가하여 2011년 294.6억 달러를 기록(자료원 : IBIS World)
- 2015년까지 연평균 3.9% 성장한 351.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알루미늄 및 구리합금 제품의 성장세가 가장 높을 전망
- 기계수요 증가 및 금속 가공 부품 주요 수요처인 자동차 및 중장비, 항공 산업 회복으로 수요 증가가 기대
 - 특히, 풍력 발전에 사용되는 터빈의 수요증가가 성장 견인 예상

<수요처별 분포>



철금속 제품(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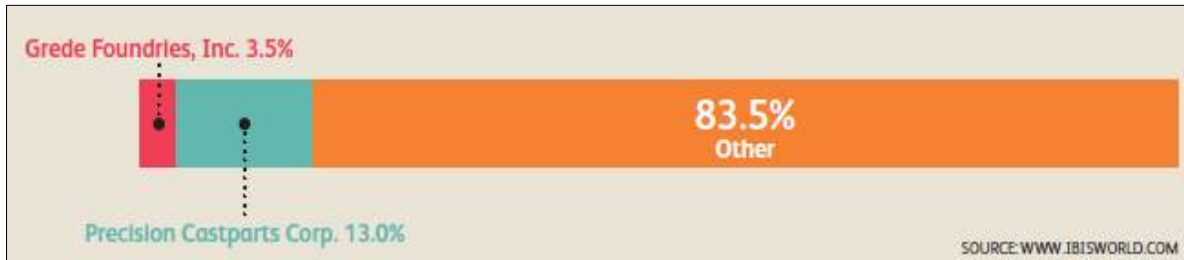
비철금속 제품(42%)

주 : 금속 주물시장은 제품의 철(iron) 함유정도에 따라 철금속 제품(58%)과 비철금속제품 (42%)으로 구분
 자료원 : IBIS World

□ 경쟁동향

- (철금속 시장) Precision Castparts Corp (13%), Grede Foundries, Inc.(3.5%)가 시장을 주도, 나머지 시장은 다수의 중소기업체들이 난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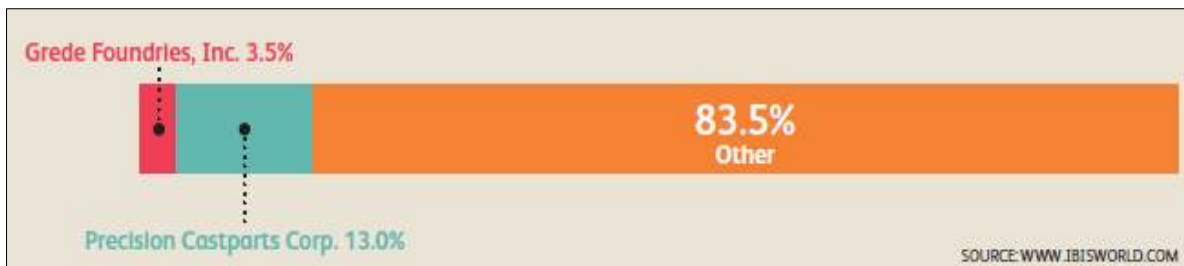
<철금속 시장 업체별 시장점유율>



자료원: IBIS World, Ferrous/Non-Ferrous Metal Products in the US

- (비철금속 시장) Koch Enterprises, Ryobi 등 상위 4개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5.2%에 불과해, 철금속 시장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이 난립

<비철금속 시장 업체별 시장점유율>



자료원: IBIS World, Ferrous/Non-Ferrous Metal Products in the US

- (수입시장)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이 전체 수입시장의 74.1%를 차지하며 시장 독식

□ 한미 FTA 발효 전후 對美 수출동향

- 올해 상반기 대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230만 달러를 기록

<수입 대상국 및 수입액>

(단위: 천 달러)

순위	국가명	2010	2011	2012.1~6월	증감률(%)
1	중국	56,565	71,960	40,306	20.52
2	인도	23,415	26,611	25,313	90.42
3	브라질	2,228	8,228	4,138	10.89
4	캐나다	11,990	8,725	4,003	-13.89
5	대만	3,867	3,713	2,392	39.9
6	한국	4,586	4,794	2,324	13.96
합계		114,077	136,298	84,017	28.25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한미 FTA 활용 對美 수출 성공사례

- 농기계 및 중장비 주물 부품을 생산하는 D社는 미국 농기계 업체이자 부품바이어인 A社와 2011년 1월 납품 계약을 체결
 - 회사 규모가 작고 미국 기업과 거래 경험이 없어 계약이 성사되기까지 많은 난관이 있었으나, 경쟁력 있는 가격과 품질,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공장 실사를 통해 바이어 설득에 성공
- 첫 납품 이후, 다양한 종류의 소량 주문 대응과 철저한 납기 준수를 통해 신뢰를 쌓아갔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가 인상으로 가격경쟁력 약화 문제에 봉착
- 때맞춰, 한미 FTA 발효되면서 2.9%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가격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되었고, 현재는 A社와 연간 100만 달러 규모의 신규 납품 계약을 앞두고 있음.

품목명	전문가용 디자인 마커	HS Code	960820
관세율 변화	4% → 0%	관세철폐스케줄	즉시철폐
FTA 발효전후 對美 수출동향	·올해 상반기 대미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		

□ 수요동향 및 전망

- 미술 관련 시장은 약 40억 달러 규모로, 이중 재료 시장은 약 21억 ~ 26억 달러 정도로 추산되며 매년 약 4% 성장
- 품목별 판매 비중은 캔버스, 패널, 종이 등이 전체 판매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물감은 22%, 연필, 파스텔, 마커 등은 9%, 붓 및 기타 도구는 7%를 차지

□ 경쟁동향

- 전문가용 마커는 고가 제품으로 주로 유럽과 미국, 일본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한국산 제품의 진출은 미미한 수준
 - 아직까지 한국산 제품의 우수한 품질에 비해 미국 시장 내 인지도는 높지 않은 편

□ 한미 FTA 발효 전후 對美 수출동향

- 올해 6월까지 한국산 펜과 마커의 대미 수출액은 약 6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84%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
 - 중국, 일본, 멕시코 등 경쟁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증가율
- 참고로, 하단 통계는 저가 일반용 마커 수입액을 포함하고 있어, 중국산, 멕시코산 수입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수입 대상국 및 수입액>

(단위: 천 달러)

순위	국가명	2010	2011	2012.1~6월	증감률(%)
1	중국	107,883	98,365	51,691	4.49
2	일본	32,636	35,730	19,359	-3.47
3	멕시코	16,306	19,98	14,076	29.19
4	한국	5,197	6,942	6,025	83.72
5	베트남	6,799	7,720	5,362	37.13
6	독일	7,216	7,826	3,523	-10.96
합계		193,758	200,448	109,385	3.79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한미 FTA 활용 對美 수출 성공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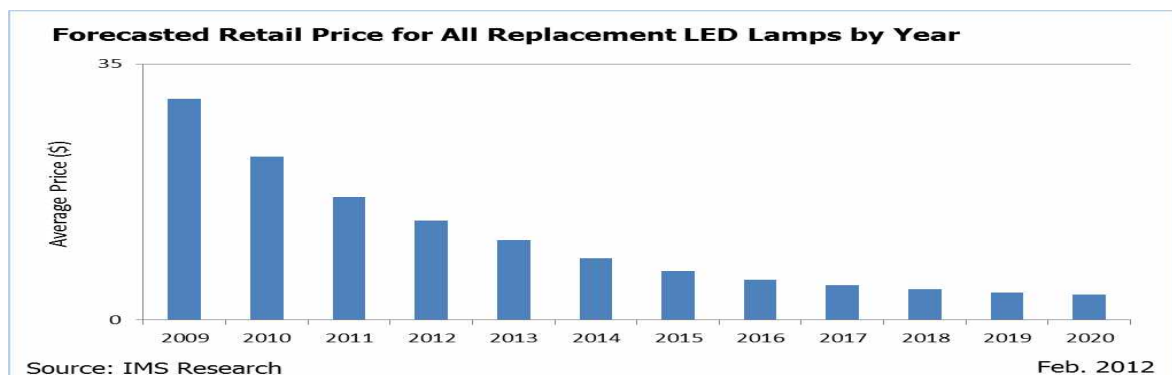
- 철저한 디자인·상표 소송 대응과 세계최고로 평가받는 핵심기술이 집약된 자사브랜드 '맵시(MEPXY)' 출시(2011)를 통해 브랜드에 보수적인 미국 미술재료 시장에 도전장
- 지난해, Dick Blick, Notions, Michael's 등 현지 주류 유통망에 40만 달러 초기공급계약 성공
- 올해 신규 바이어 발굴을 위해 참가한 미국 유명 미술용품 전문 전시회 (NAMTA)에서 유명 미술재료 생산업체인 C社를 만나게 되어, 이 기업의 유통망을 통해 맵시 브랜드로 제품 납품 추진 중
 - 조만간 연간 100만 달러 수출 계약 기대

품목명	LED 조명	HS Code	940540
관세율 변화	3.9~6.0% → 0%	관세철폐스케줄	즉시철폐
FTA 발효전후 對美 수출동향	·올해 상반기 대비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86% 증가		

□ 수요동향 및 전망

- 미국은 세계최대의 LED 조명시장으로 '11년 시장규모가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20.4억 달러로 추정되는 등 높은 성장세 시현(자료원 : IMS)
 - IMS는 이러한 높은 성장세를 바탕으로 '15년에는 시장규모가 134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
- LED 조명시장의 급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요소는 정부정책 및 가격하락
 - 미국 정부는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LED 보급 확대를 위해 백열등 판매를 금지하는 'EISA(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2007 Section 321' 법안 입법완료
 - '12년부터 100와트, '13년에는 75와트, '14년에는 40와트 및 60와트 백열등 판매가 금지되면서, LED 조명에 대한 수요 증가
 - 그동안 높은 LED 조명가격(20~50달러)은 LED 조명 보급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으나 최근 기술발전과 경쟁심화로 LED 조명가격 꾸준히 하락
 - * LED 조명시장 전문 조사기관인 IMS는 '14년에는 LED 조명 가격이 10달러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

<글로벌 LED 조명가격 추이 및 전망>



□ 경쟁동향

- 주요 3개 기업이 LED 조명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과점상태
 - LED 조명에 대한 정확한 시장점유율 통계는 없으나, ISM은 Philips, Osram, GE 등이 전체 시장의 60%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이 외에 후발주자인 삼성, LG, 샤프 등이 본격적으로 LED 조명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
- LED 조명 수입시장은 중국산 제품이 석권
 - '11년 기준, 중국산 LED 조명은 전체 수입시장의 74%를 점유하고 있으며, 멕시코(10.8%), 캐나다(4.4%), 독일(2.1%) 등이 뒤를 잇고 있으나 큰 격차
 - 중국, 멕시코, 캐나다산 LED 조명이 미국 수입시장을 지배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은 주요 LED 조명 생산업체의 생산 공장이 이들 국가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

□ 한미 FTA 발효 전후 對美 수출동향

-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186.4% 증가한 847.8만 달러로 '11년 수출액(890만 달러)에 육박

<수입 대상국 및 수입액>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명	2010	2011	2012.1~6월	증감률(%)
1	중국	1,354.5	1,547.0	839.2	32.6
2	멕시코	274.1	224.7	190.4	77.2
3	캐나다	61.9	91.9	49.7	14.5
4	대만	29.8	36.7	22.3	55.2
5	독일	36.0	43.2	21.3	1.7
9	한국	3.6	8.9	8.5	186.4
합계		1,854.7	2,086.1	1,222.6	39.1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한미 FTA 활용 對美 수출 성공사례

- 미국 뉴저지에 본사가 있는 맥스라이트(MaxLite)는 1955년 설립된 조명 전문업체로 중국과 한국 등지에서 하청생산(ODM/OEM)된 LED 조명 제품을 미국 시장에서 판매
- 맥스라이트가 취급하고 있는 LED 조명제품 중 평판패널조명과 라이트바(Plug-and-Play LED Lightbar) 제품은 엔타임텍 등 2개의 한국 업체에서 납품
 - 라이트바 제품은 중국에도 협력업체가 있으나 아직까지 한국의 우수한 제품 품질이나 기술력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 엔타임텍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고 있음.
- FTA 발효로 최대 6% 관세가 즉시 철폐되자, 엔타임텍으로부터 '12년 초 대비 주문량을 10% 이상 증가



작성자

◆ 뉴욕무역관	고일훈 차장
◆ LA 무역관	김준규 차장
◆ 시카고무역관	장선영 과장
◆ 디트로이트무역관	김태균 과장
◆ 워싱턴무역관	권오승 과장
◆ 선진시장팀	이정선 과장



Global Market Report 12-060

한미 FTA 발효 6개월 對美 수출 성과 분석

발행인 | 오영호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12년 9월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 137-749)
전화 | 02) 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12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새로운 5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

